

문학

오랜 전통의 풍부한 역사와 오늘날의 활황

일본의 기록 문학은 오랜 동양의 전통 중 하나이다. 8세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의 문학은 외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주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현대 서양 문화의 영향이 커져 갔다.



나라 시대의 가집, 만요슈(萬葉集)의 와카(和歌)를 새긴 비

고대 문학과 헤이안 시대의 문학

중국의 수나라(581-618)와 당나라(618-907)로 보내진 공식 사절단의 파견은 600년부터 시작되어, 중국의 문화와 기술, 정부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일본에 전하였다. 한자와 일본어를 섞어 쓴 '고지키'(고대 문물의 기록, 712)와 고대 중국어로 쓴 '니혼 쇼키'(일본 연대기, 720)는 일본의 국가적 정통성을 수립할 목적으로 나라의 지원을 받아 편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신화와 계보, 민족적 영웅의 전설과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다수의 일본의 고대 가요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운율이 불규칙하며 일본어의 단어나 음절을 한자로 표기하고 있어, 문자 이전의 일본 시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자로 쓰여진 고대 가요의 주요 모음집으로는 '만요슈'(8세기 후반)가 있다. 이 책에는 주로 7세기 중반부터 8세기 중반에 걸쳐서 지어진 31음절로 된 '와카' 형식의 고대 가요가 수록되어 있다. 이 모음집에 수록된 초기의 가요들은 힘찬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후의 가요들은 수사적인 형식과 이후 일본 황실의 '와카'의 전통에도 영향을 준 미묘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어의 음을 표시하는 독자적인 철자법

('가나')이 9세기 중반에 개발되면서 문학은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일본어의 소리를 문자로 표시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한자를 단순화시켜 만든 가나 문자의 체계는, 중국과는 다른 일문학의 깊은 전통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가인들은 그들이 지은 시와 일부 그림을 첨가한 모음집('시카슈')을 편찬하였다. 21편의 전통 시를 담은 최초의 일본 황실의 시집인 '고킨 와카슈'(905)가 10세기 초반에 편찬되었다.

'가나'의 도입은 산문 문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초기 작품에는 '이세 모노가타리'(10세기 초, 이세의 이야기)와 시를 중심으로 한 삽화 모음집, 일기 형식인 '도사 닛키'(935)가 있다. 10세기 후반부터는, 자신의 딸들을 황실에 배우자로 보내어 황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후지와라 가문의 섭정의 영향으로, 내방에는 여성 문학 동인이 형성되었다. 11세기 최고의 산문 문학을 쓴 이들도 여류 작가들이었다. 무라사키 시키부(10-11세기)가 쓴 소설 형식의 이야기인 '겐지 모노가타리'(11세기 초반)와, 세이 쇼나곤(10-11세기)의 에세이 모음집인 '마쿠라노 소시'(996-1012) 등의 작품을 일본인은 일문학 역사의 발전에 있어 분수령으로 여기고 있다.

중세 문학

중세 시대(12세기 중반~16세기)에는 ‘렌가’(복수의 작가가 시를 연작)가 발달하였다. 황실 전통의 ‘와카’(운율 시)에서 유래한 ‘렌가’는 무사 계급과 신하들에 의해 발달하였으나, 최고의 ‘렌가’ 작가 중에는 소기와 같은 일부 평민들도 있었다. 중세 시대의 대표적인 산문 문학은 ‘군키 모노가타리’라는 전쟁 이야기였다. ‘헤이케 모노가타리’(13세기 초반)는 황제의 통치로 끝나게 된 다이카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 사이의 전쟁을 담은 이야기이다. ‘군키 모노가타리’는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비파의 악기 연주에 맞추어 이야기를 전한 승려들에 의해 사회의 모든 계층에 전파되었다. 중세 시대 초기의 불안정한 사회상을 반영하여 세상사의 무상함을 설파하는 불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나타내게 되었다. ‘헤이케 모노가타리’, 가모 조메이(1155~1216)의 에세이 모음집인 ‘호조키’(1212), 요시다 겐코의 ‘쓰레즈레구사’(1330년 경)의 중심 주제는 ‘인생 무상’이었다.



헤이안 시대 여류 작가,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의 동상 고전 소설 ‘겐지 이야기’의 작가다. (사진제공:AFLO)

에도 시대 문학

약 100년간의 전란 뒤 에도에 세워진 안정된 막부와 통일화폐 사용의 확대를 기반으로 한 시장 경제의 발달은 에도 시대(1603~1867) 도시민 계급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사회의 전반적인 번영은 문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문학 작품은 상품화되어 출판 산업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이하라 사이카쿠(1642~1693)의 ‘고쇼쿠 이치다이 오토코’(1682)와

같은 동시대의 사회를 풍자한 소설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대중들에게는 정교한 그림을 곁들인 산문 작품들이 인기를 모아 에도 시대의 주요 문학이 되었다. 인형극인 ‘조루리’와 가부키의 공연을 위해 상업적인 극장이 건립되었으며, 이들 공연의 줄거리는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시작된 엄격한 계급 사회 제도로부터 발생한 대립에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다.

자연과 일반인들의 삶을 17음절로 가볍게 노래한 ‘하이카이’(이후 ‘하이쿠’라고 함)라는 운문이 마쓰오 바쇼에 의해 위대한 문학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마쓰오 바쇼의 ‘오쿠노 호소미치’(1702, 먼 북쪽으로 가는 좁은 길)와 같은 여행 일기는 유명한 작품이다. 게이추(1640~1701), 가모노 마부치(1697~1769),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1801) 등의 문헌 학자들이 ‘고지키’, ‘만요슈’, ‘겐지 모노가타리’와 같은 일본 초기의 문학 작품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을 집필하였다.

현대 문학

1867년 일본 황실이 복구된 후, 중국의 문화를 대체하여 서양의 기술과 문물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소설이 진지하고 존경받는 문학 장르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구어체를 선호하는 문체로 바뀌어 문어체는 단계적으로 소멸하였다. 후타바테이 시메이는 일본 최초의 현대 소설이라 불리는 ‘우키구모’(1887~1889)를 썼다. 그의 소설이 신선한 충격을 준 이유는 언문일치의 구어체를 사용한 점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곤경에 처한 주인공에게 작가 후타바테이의 생각을 주입했다는 점과 주인공에 대한 세밀한 심리적인 분석을 하였다는 점이다.



에도 시대 기행문, 오쿠노 호소미치(奥の細道) 마쓰오 바쇼의 ‘오쿠노 호소미치’의 장면과 본문을 그린 병풍 (사진제공 : 야마가타 미술관)

1890년대는 이러한 후타바테이의 심리적인 통찰 기법을 몇몇 젊은 작가들이 계승하였다. 이 같은 형식의 인상적인 소설 중의 하나는 히구치 이치요(1872-1896)가 쓴 소설 '다케쿠라베'(1895-1896)이다. 흥등가에 사는 아이들의 이야기인 이 소설에서 이치요는 청소년기의 외로움과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혼란을 묘사하였다. 또 다른 작가인 시마자키 도손(1872-1943)은 그의 첫 소설인 '하카이'(1906)에서 주인공이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차별 부락민 출신임을 숨기고 사는 한 교사의 이야기를 썼다. 도손은 '하카이' 이후에도 자신의 사적인 세계에 은둔하여 '자아 소설'이라고 알려진 개인의 이력과 관련된 장르의 글을 썼다.

현대 일본의 현실주의 소설은 나쓰메 소세키(1867-1916)에 의해 성숙되었다. 그의 주인공들은 새로운 이기주의에 상처받기 쉽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예민한 성격의 대학 교육을 받은 남자였다. 나쓰메 소세키에게 있어서 배신으로 인한 죄의식과 고립은 자아 회피와 서양 문화의 도입으로 나타난 불확실성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이러한 그의 주제는 '마음'(1914), '문'(1910), '행인'(1912-1913) 등의 소설에서 잘 나타나 있다.

모리 오가이(1862-1922)는 독일을 소재로 한 아름다운 3편의 단편 소설로 찬사를 받았다. 가장 유명한 '마이히메'(1890)는 베를린에서 공부하는 젊은 일본인 학생과 독일인 댄서의 운명적인 사랑을 다루었다. 오가이의 대표적인 후기 작품으로는 에도 시대 의사였던 시부에 즈사이의 일생을 소설화한 역사 전기 소설 '시부에 즈사이'(1916)가 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1892-1927)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단편 소설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라쇼몬'(1915)과 '야부노 나'(1922)와 같은 작품은 민감한 심리적 변화와 냉소적인 분위기를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환희와 훌륭하게 결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가이가후(1879-1959)는 우울한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삶과 작품은 현대와 과거 일본에 대한 동경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였다. 그러한 소설의 예로 '보쿠토 기단'(1937)은 도쿄 외곽의 쇠퇴한 화류계의 모습을 아름다운 필체로 묘사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의 무서운 경험에 이은 상실감과 혼돈을 잘 나타낸 작가는 다자이 오사무(1909-1948)였다. 다자이의 소설 '사양'(1947)과 그가 자살하기 직전에 출간된 '인간 실격'(1948)는 많은 독자들을 매료하였다. 패전 후 얼마 안 되어 다니자키 준이치로(1886-1965)는 그의 명작인 대하 소설 '사사메 유키'(1943-1948)를 발표하였다. 전쟁 직전의 마지막 귀족 상인들의 생활 모습을 딸들의 일대기를 통해 그려낸 이 소설은, 옛스럽고 고상한 세계의 마지막 소멸을 그린 아름다운 애가이다.

'설국'(1935-1947)을 통해, 노벨상을 수상한 가와바타 야스나리(1899-1972)는 가장 인상적인 인간 관계조차도 위협하는 친밀함의 공포를 암시하면서 작중 인물들 사이에 거리를 넓혀갔다. 전쟁 후, 가와바타는 '야마노 오토'(1949-1954)와 같은 작품들에서 그가 "잃어버린 일본에 대한 애가"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쟁 후 초반의 일본 문학은 패배의 충격과 혼란으로 인하여 뭐라 한 가지만으로 특징 지을 수는 없다. 사실 1945년 이후에 문학 활동의 활기찬 부흥기가 있었으며 이 시기에 등단한 새로운 작가들을 전후 작가 '1세대'라 부른다. 이들 중에는 노마 히로시(1915-1991)와 오오카 쇼헤이(1909-1988)가 있다. 전후 작가 '2세대'로는 아베 고보(1924-1993)와 미시마 유키오(1925-1970)가 있다. 아베는 소설 '모래의 여자'(1962)에서 카프카(1883-1924)식의 실존주의를 상징하는 독특한 형식을 창출했으며, 미시마는 '금각사'(1956)와 같은 작품으로 전 세계의 독자들을 그의 화려한 탐미주의로 매혹하였다.

평론가들은 1950년대를 전환기로 평가하는데, 그 이후 일본 소설은 전쟁 후의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초반 고지마 노부오(1915-2006), 야스오카 쇼타로(1920-), 요시유키 준노스케(1924-1994), 시마모 도시오(1917-1986)와 같은 전후 작가 '3세대'들에 의해 자아 소설 형식이 부활하고 개혁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들 중에는 소설 '침묵'(1966)에서 배신과 비겁, 순교의 문제를 고찰한 가톨릭 개종자인 엔도 슈사쿠(1923-1996)가 있다.



일본근대문학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의 초상화
(사진제공 : 일본근대문학관)

1960년대부터 작가들은 소설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합하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실험하려 노력하였다. 199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1935-)는 동시대 소설을 위한 창의적인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의 소설 '개인적 체험'(1964)과 '만연 전년의 풋볼'(1967)를 통해서 표현의 형식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 다자이 오사무의 딸인 쓰시마 유코(1947-)는 "총아"(1978)에서 홀어머니인 여자의 일생을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수십여년 동안, 국제적인 문화 환경에서 자라온 세대들의 대표로는, '한 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1976)를 쓴 무라카미 류(1952-)와 1000백만 권 이상이 팔린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의 숲, 1987)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1949-)가 있다. 1964년에 태어난 요시모토 바나나(1964-)는 '키친'(1988)에서 절망적인 고립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작가들은 일본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독자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기리노 나쓰오의 미스터리 소설이 인기를 누렸다. 대표작으로는 '아웃'(1998년), '그로테스크'(2003년) 등이 있다.

오늘의 문학

2000년 이후로는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으로, 인터넷 상에서 공개하는 온라인 소설과 휴대전화로 볼 수 있는 휴대폰 소설 등, 새로운 형식의 문학이 등장하였다. 인기있는 휴대폰 소설 중에는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드라마화 한 작품도 있다. 또한, 삽화와 일러스트를 많이 넣어서 읽기 쉽도록 쓴 라이트 노벨이라는 장르가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은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2006년에는 체코의 프란츠 카프카상을 받았고, 2009년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상을 수상하였다.